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8일
코스피지수	2208.88	↓	-33.29
코스닥지수	682.92	↓	-9.67
환율 (원·달러)	1189.50	↑	+5.60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14

비즈 패트론 | 5일 만에 이사후보 사퇴...반전 거듭 한진 경영권 분쟁

수세 몰린 '조현아 연합군', 반격 카드 있을까

김 전 상무 사퇴...“현 경영진 지지”
3자 연합 이사 후보 전문성 약화
그룹 노조, 조현아 전 부사장 맹비난



김치훈 전 상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두에 나서길 기대했던 핵심 장수가 전장을 이탈했다. 아예 맞서 싸우라고 했던 상대방에 가세해 버렸다. ‘어지간한 TV 드라마 보다 재미있다’는 말이 나오는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의 상황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이루어진 ‘3자 주주연합’ (이하 3자 연합)이 ‘돌발 악재’를 만났다.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추천한 8명의 이사 후보 중 김치훈 전 한국공항공 상무가 17일 돌연 사퇴의사를 밝혔

다. 이사 후보를 공개한지 5일만의 결정이다. 김치훈 전 상무는 이날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3자 연합이 추천하는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에 따르면 김 전 상무는 편지에서 “3자 연합의 주주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본인 의도와 너무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유감스럽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 “KAL MAN(칼 맨)으로서 한진그룹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료 후배로 구성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사실상 조원태 회장 지지를 밝혔다.

김 전 상무의 전격 사퇴에 3자 연합은 일단 “이사 후보 1명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흔들림없이 한진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전 상무의 이탈에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자 연합은 13일 8명의 이사 후보를 공개한 이후 “올드맨 중심이다”, “항공산업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김 전 상무는 합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와 함께 후보들 중 그나마 ‘유리한’ 항공산업 경력자였다. 따라서 김 전 상무의 이탈은 이사 후보의 전문성 논란에 시달리는 3자 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이다.

김 전 상무가 자신을 이사로 추천한 3자 연합에 사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한진칼에만 편지를 보내 알린 점도 악재다. 일부에서는 이제 후보 중 ‘유일한’ 항공 경력자로 남은 합철호 전 대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3자 연합에게는 추가 이탈자를 막으면서 항공업 경력을 갖춘 새 후보를 찾아야 하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 노조는 1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강경하게 질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에는 (주)한진, 한국공항 노동조합과 함께 3자 공동 입장문을 내고 3자 연합을 다시 맹비난했다. 그룹 노조가 조원태 회장 편에 섰음을 천명한 셈이다.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방을 가를 한진칼의 주주총회는 3월 열릴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세계적인 e스포츠 스타 ‘페이커’ 이상혁(사진)이 T1과 재계약을 맺고, 팀 경영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T1은 이상혁과 재계약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 3년이다.

T1은 또 이상혁이 은퇴 이후 경영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수육성과 글로벌 사업 등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혁은 “지지해 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수 은퇴 후에도 T1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혁은 T1의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월드컵) 3회 우승의 주역으로 국내는 물론 북미와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영근 기자



한국타이어의 스마트 플렉스 신차용 타이어를 장착한 포드의 상용트럭 2020 포드 슈퍼 듀티 세시 캡. 사진제공 | 한국타이어

게임산업협회 “중장기 계획 수립이 먼저”

18일 게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진흥’ 빠진 게임사업법 명칭 우려

게임업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지 우려된

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와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는 것과 비교해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연관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달라진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게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보다 구체적인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장인이 만든 건강차 드세요”

현대백화점의 전통식품 자체브랜드(PB) 명인명촌이 오영순 장인의 건강차를 내놓았다. 전남 고흥에서 재배한 유자와 국산 한약재를 발효 숙성한 흑유자생화차, 홍삼, 벌꿀, 생강 등을 첨가한 발효한차로 구성했다. 출시 기념으로 23일까지 10% 할인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여파 비상경영 선포

대표·임원진 사표, 급여 일부 반납
중국 노선 축소...전직원 무급 휴직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지난해 매출 부진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19일 임직원들에게 보낼 답화문을 통해 “2019년 한일 관계 악화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회사가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아시아나항공은 19일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사표

를 제출했다. 임원들은 급여를 30% (사장 40%) 반납하고, 조직장들도 급여 20% 반납에 나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노선을 약 79% 축소하고, 동남아시아 노선도 약 25% 축소시켜 운항, 캐빈, 정비 등 유휴인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승무원, 정비직 등 전 직종에 걸쳐 무급휴직 10일을 실시한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14일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사내의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창립기념 직원포상도 중단했다. 향후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는 영업 외 활동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범 기자

새학기 ‘디지털 준비’는 온라인서
노트북·태블릿·프린터 등 할인 판매

새학기를 맞아 e커머스 서비스들이 디지털 기획전을 연다.

쿠팡은 삼성전자 신제품과 베스트셀러를 모은 ‘삼성 브랜드데이’를 23일까지 진행한다. 노트북·태블릿, 휴대폰·웨어러블, 모니터·프린터, TV와 냉장고·세탁기, 공기청정기·청소기 등 7가지 카테고리도 준비했다. 신학기를 겨냥해 2020년 인기 신제품 노트북과 태블릿을 최대 20% 할인한다. 상품별 즉시할인과 함께 삼성, 국민, 농협 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20%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G마켓과 옥션은 25일까지 ‘디지털가구 빅세일’을 연다. 인기 브랜드를 최대 70%



특가에 판매한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샤오미 등이 참여한다. 멤버십 스마일클럽 고객에게는 20% 할인쿠폰 2장을, 일반회원도 15% 할인쿠폰 2장을 준다. 브랜드 별 중복 할인쿠폰도 이용할 수 있다.

위메프도 29일까지 ‘위메프 아카데미’ (사진)에서 노트북 등을 할인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레노버, HP, MSI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일체형PC, 조립PC,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등도 특가에 판매한다. 중복사용 가능한 3종 쿠폰을 지급해 최대 20% 할인을 제공한다.

김영근 기자

하이트진로, 美 대도시서 기업설명회 진행

17일부터 진행...해외 투자 촉진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에서 본격적인 해외기업설명회(NDR: Non-Deal Roadshow)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뉴욕, 보스턴 등 미국 대도시에서 해외 IR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인규 사장이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며,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장과 기업가치 제고, 해외 투자자의 이해 증진을 통해 투자활동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설명회에서 2019년 경영실적과 함께 지난해 출시한 테라, 진로와 최근 다시 주목받는 발보주 필라이트 등을 포함한 국내시장 현황과

해외시장 성장추세 등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두 신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7년 만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하이트진로의 2019년 매출액은 2조 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성장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국타이어, 포드에 신차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미국 완성차 브랜드 포드의 상용트럭 2020 포드 슈퍼 듀티 세시 캡의 F450 및 F550 모델에 스마트 플렉스 AH35와 DH35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

스마트플렉스 AH35와 DH35는 특수설계한 트레드를 적용해 낮은 회전저항과 뛰어난 주행성능을 갖춘 트럭 버스용 타이어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6’의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스마트플렉스 AH35는 트레드에 멀티 3D 사이프를 적용해 접지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배수성능을 높여 수막현상을 최소화 하도록 트레드 중앙에 물결 모양 그루브를, 바깥쪽에는 직선형 그루브를 배치했다. 고강성 트레드 블록이 연료효율을 높이고 타이어가 고르게 마모되는 특수 패턴이 적용되었다.

스마트플렉스 DH35는 광폭 트레드의 표면을 지그재그형 그루브가 가로지르도록 설계해 마일리지를 높이고 다양한 노면에서 우수한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1999년부터 포드와 협력 관계인 한국타이어는 대형 픽업트럭 F-150과 중형 픽업트럭 올뉴 레인저, CUV 포커스 액티브, 상용 왜건 이코노라인 등에 신차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관광약자’ 관련 서비스 매뉴얼 출간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와 관련 서비스 지침 사례를 묶은 ‘모두를 위한 관광, 관광업 종사자 서비스 매뉴얼’을 발간했다. 모두를 위한 관광의 의미와 특징, 관광약자 고객의 이해, 관광업 종사자 서비스 가이드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관광 관련 업소, 공공기관, 민간단체, 안내소 등에 우선 배포한다. 서울관광홈페이지(www.visitseoul.net)와 서울다누림관광홈페이지(www.seouldanurim.net)에서 PDF 버전을 열람할 수 있으며, 매뉴얼 신청은 서울다누림관광센터(1670-0880)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범 기자